

사설

소비자보호는 불교가르침

비가 내리는 틈을 타, 독극물에 가까운 폐수를 한탄강에 흘려보내 불고기 수십만 마리가 때죽음하는 죽은 강으로 변한 것을 보았다. 그 화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뭇가지의 조개가 썩은 오수를 머금고 입을 벌리고 백사장에 죽어 널부러졌다. 옛 인도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이 비참과 고통임을 일깨우기 위해 갠지스강에서 죽은 시체가 부패해 가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도록 권유한 풍습이 있다. 그것을 복후관 혹은 백골관이라 했었다. 이제 그런 인위적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눈을 뜨면 절망과 공포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다.

세상은 본래 안팎이 없다. 공간적 거리도 시간적 지연도 없다. 한 순간에 세계가 나누기도 하고 한 순간에 세계가 한꺼번에 깨져간다. 그것이 연기(緣起)의 실상(實相)이다. 저기를 뒤집어 쓴 걸전전의 가미우지가 먼 곳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둡고 순진한 사람이다. 한탄강의 썩어가는 나뭇가지의 조개는 지금 바로 여기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다. 그것이 내 몸 속에서 나를 죽이고, 또 그 운화가 흙을 죽이고 곡식을 죽이고, 다시 내 이웃과 가족을 죽인다. 아마도 핵이 손쓰기 전에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를 마감할지도 모른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을 살려야 한다. 환경의 유지와 보호는 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유럽에서 공우병 소동으로 경제 위기가 접착되고 있는 관에, 서울에서 도축되는 소 가운데 상당수가 병든 소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자급자족의 시대에서는 모든 일상적 필요를 가족 혹은 소규모의 부족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조직화되고 분업화되고, 그리하여 유통이라

는 것이 새로운 상업의 개념으로 등장함으로써 일상은 우리의 통제밖으로 벗어났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같은 유기적 거대자본주의의 메카니즘이 연기의 소식을 가장 잘 실감시켜 주는지도 모른다. 곡식이 농부의 손에서 지라 우리네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단계와 협력을 거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빠지거나 소홀해도 흐름이 막히거나 일탈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혼란으로 이어진다. 화염(華嚴)을 알리는 이보다 실제적인 교과서가 어디 있는가. 문제는 이를 주시하고 관찰하고 통제하는 일이다.

교과가 이에 발맞추고 나섰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형이상학적 교설을 중생들에게 몸으로 깨우칠 다시 없는 기회이다. 그동안 불교계가 소홀히 했던 소비자 보호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오는 17일 정식으로 총지중 총지사에 현관을 열고 사무실을 마련해 불교소비자보호단체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니 벌써부터 그 역할에 기대되는 바 크다.

사업계획으로는 총지중 주관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 보호시책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을 교육 계몽하며,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청구를 개설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물에 대한 시험과 검역, 용역 거래 방법까지 감시하겠다고 하니 대단한 의욕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이 구체적인 만큼 전문적 훈련을 필요로 하고, 또한 여러 다른 소비자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가 요망된다. 불자들은 이 사업이 불교의 본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절실한 사안임을 주지하여, 자발적으로 수회동참(隨喜同參)하기를 촉구한다.

질서는, 모든 가치있는 것이 그렇듯이,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12년간 방장으로 주석했던 승보총장 승려사 조계총림을 떠나는 일각스님 법구.



불교포교를 위해 전세계 157개국을 순회무진했던 서경보스님. 사진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의 목에 염주를 걸어주고 답사하는 모습.

“두 큰스님 빈자리 정진으로 채우자”

일각스님은 효봉(1888~1966), 구산(1909~1983)스님의 뒤를 이어 승광사 근대선맥을 이어왔다. 1924년 평남 개천출신인 스님은 46년 동국대 국문학과를 중퇴하고 이듬해에 지리산 칠불암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55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출가전 평양 죽남국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어느날 한 학생을 훈화하면서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되었다. 스님은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킬수 없다'며 교사직을 사직했다. 그 후 불교소설, 경전을 탐독하던 스님은 출

6월23일과 25일 '연가피' 두 선지식이 우리곁을 떠났다. 평생 순수행으로 정진하며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조계총림 방장 일각스님, 끝간데 없는 포교를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서경보스님, 스님들의 지니는 발자취가 뚜렷하게 열반소식을 접한 불자들은 그 빈자리를 허허로워 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지고 있다. (편집자 주)

스님은 인도, 동남아 불교의 계승을 공부한 후 태국스님 10분을 통도사 금강계단에 초청했다. 그 계단에서 자운, 일타스님 등 53명의 스님이 수계를 받았다.

84년 조계총림 3대방장으로 추대된 스님은 94년 4대방장으로 재추대되어 보조국사의 법맥을 전승하고 조계선종을 내외에 드날렸다. 스님은 수행뿐 아니라 용화사 미래사 승광사 등서 주지를 역임하면서 각종 불사

서경보스님은 지난 6월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신영동 법원청에서 별반하는 순간까지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매일 새벽 3시엔 아침예불과 산행으로 시작하여 한달에 25일을 극내의 각지를 돌며 세계평화와 불교포교에 전념했던 스님은 최근 중국의 구화산과 백악산에 평화통일 시비를 건립하고 연이어 미국포교에 나선 뒤 급격한 건강악화와 노환으로 열반에

결성하여 92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정회원 16개국 대표가 참가한 세계법원청 총회에서 초대법원에 취임하여 동양과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157개국을 순회무진, 승려의교관으로 화제를 모기도 했다.

94년 제 2차 법원청 총회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세계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30여년 전부터 한반도 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전망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7천만 동포의 염원인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비를 7백57곳에 건립했고 유엔의 전권대사 유네스코 특사로 활약했으며 유엔총회

회광 일각스님 행장

계율 생명처럼 삼고 참선수행 '후학귀감' 원로회의 부의장·수계산림증사 등 역임

가를 결심했다. 절구통수좌로 잘 알려진 효봉스님 밑에서 행자때부터 참선에 몰두, 전국제방의 선원을 다니며 정진에 임했다.

를 단행하고 종단개혁에도 앞장섰다. 승광사에서 주지와 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8차례 걸쳐 중창불사를 펼쳐 조계총림의 면모를 일신했다. 스님은 또 전국 최대의 수행단체인 불일회 총재와 효봉문도회 문장을 맡아왔으며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조계종단 수계산림증사 등을 역임하며 종단과 불교발전에도 앞장서 왔다. (업)

臨終偈

念起念滅即生死(염기염멸즉생사)
無起無滅即涅槃(무기무멸즉열반)
生死涅槃誰由事(생사열반수유사)
古往今來手裏掌(고왕금래수이장)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곧 생사요/일어나지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곧 열반이 다/생사와 열반이 누구를 맡아있어 있는 일이나/옛날부터 오늘날 까지 손등과 손바닥이 아니라

일봉 경보스님 행장

26개 분야 126개 박사학위·저서 1042권 88년 일봉선교종 창종...세계포교 전력

에서 핵무기 폐기등을 강조해온 업적으로 승려로는 유일하게 지난해와 올해 유엔본부 세계평화교육자회로부터 2회연속 노벨 평화상후보로 추천되었다.

특히 스님은 최다박사학위, 최다저서, 최다통일기원비 건립, 50만점에 이르는 최다선필, 최다석굴법당 건립으로 기네스북에도 5관왕으로 기록돼 있다. (우)

臨終偈

蛇化登龍一角生(사화등룡일각생)
松潭風雨萬人驚(송담풍우만인경)
南城春至魔雲盡(남성춘지마운진)
北嶺夜來禪月明(북령야래선월명)

뱀이 화하여 용이 되어 뿔이 하나가 났는데/송담에는 풍우가 크게 일어나 만인이 놀랐다/남쪽 성에 새봄이 오니 마운이 다 없어지고/북쪽 영에 밤이 되니 선월이 밝아온다

현대만평



이러다 병나겠네!

박구원

訃 告

松廣寺 曹溪叢林 方丈이신 廻光堂 壹覺 大宗師께서 6月23日(陰 5月 8日) 午後9時30分 松廣寺 三日庵에서 入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一. 永訣日時 : 佛紀2540年(1996年)6月27日(陰,5月12日)午前 10時
- 一. 永訣場所 : 松廣寺 曹溪叢林 大道場
- 一. 茶 毘 場 : 松廣寺 茶毘場
- 證 明 : 月下, 昔珠, 西翁, 圓潭, 月山, 觀應
- 顧 問 : 月珠, 應潭, 松潭, 眞際, 靈波, 道川, 梵龍, 飛湧, 杲山, 道堅, 智宗, 清霞, 日陀, 道圓, 性壽, 碧巖, 綠園, 光德, 知有, 圓山, 性陀, 智冠, 法傳, 正日
- 葬禮委員長 : 雪靖(曹溪宗中央宗會議長)
- 副委員長 : 月誕, 玄海, 岩度, 勤日, 泰應, 宗源, 興教, 無比, 明正, 慧印, 世敏, 圓明, 道泳, 宗眞, 雲霞, 休庵, 青雲, 一牛, 月性, 玄虎, 宋錫求, 朴完一, 權翊鉉
- 葬禮委員 : 曉峰門徒一同, 全國教區本寺住持一同, 中央宗會議員一同, 全國比丘尼會長團一同, 曹溪宗 全國信徒會 및 傘下 信徒會長團一同, 全國佛日會會長團一同, 佛日獎學會任員一同, 九山獎學會任員一同, 普照思想研究院任員一同,
- 執行委員長 : 玄杲(松廣寺 住持)
- 副委員長 : 志源
- 委 員 : 智眞, 梵琮, 玄鋒, 玄田, 玄智, 靈照, 知玄
- 總務部長 : 法鏡

- 委 員 : 各 末寺庵 住持一同
- 儀典部長 : 性溟
- 委 員 : 宗旭, 玄藏, 一撤, 德祖
- 儀式部長 : 一歸
- 委 員 : 一明, 一眞, 無然, 一道, 靈寂
- 財務部長 : 靈眞
- 委 員 : 寶鏡, 靈明, 志賢,
- 涉外 및 弘報部長 : 大圓
- 委 員 : 古鏡, 正道, 正印, 正行
- 護 喪 : 慧菴(曹溪宗元老會議 議長)
- 門中代表 : 秀山
- 門徒代表 : 慈經
- 門 徒
- 師 弟 : 秀山, 法頂, 法典, 九菴, 永修, 知幻
- 上 佐 : 慈經, 慈空, 無字, 日寒, 月暑, 惺幻, 惺牛, 慈嚴, 寶林, 正果, 五眼, 梧鳳, 正歪, 性依, 道依, 石牛, 行禪, 行眞, 戒星, 道幻, 善住, 步天, 還如, 正圓
- 外國人上座 : 大法(캐나다), 太利(이태리), 大宇(미국), 大悟(미국), 大慧(덴마크), 正見(유고슬라비아)

廻光堂 壹覺 大宗師 曹溪叢林葬 葬禮委員會